

광주일보

“제1경기단체 자존심 세울터”

전남육상연맹 회장에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

“전남 53개 가맹단체 중 제1 경기단체로써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김양훈(45·사진) 대한수산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해 말 사임한 강방원 회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까지 맡는다.

김 회장은 “협회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과 화합”이라며 “연맹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과 소통행정을 펴고, 육상인들의 동참을 끌어내 화합연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장으로 재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기 동안 연 3000만원씩 1억여원을 지원하고, 훈련 지원금·포상금 등 추가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완도에서 전복·광어 양식을 통해 연간 10억여원의 순소득을 올리는 어업경영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매일

“전남 육상발전 아낌없는 지원”

전남육상경기연맹 신임 김양훈 회장 선임

대한수산 김양훈(45·사진) 대표이사가 전남육상경기연맹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으로 김양훈 대표이사가 당선됐다고 3일 밝혔다.

김양훈 신임 회장은 강진농고-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로타리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전남 육상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상의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신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이정민 기자 genius@kdaily.com

남도투데이

“연맹 재정 적극 지원, 화합·소통행정 펼치겠다”

김양훈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선임 일성...완도 재력 사업가 육상인을 위한 협회 운영 다짐...제1경기단체 자존심 세울 터

“모든 종목의 기초이면서, 전라남도체육회 53개 가맹경기단체 중 제1의 단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비인기종목으로 점차 전락해가고 있는 육상종목과 전남 육상인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완도에서 전복 및 광어양식을 통해 연간 약 10억여원의 순소득을 올리며 ‘어업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이사(45)가 전남육상경기연맹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양훈 회장은 지난달 2월 28일 11시 전라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김양훈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김양훈 회장은 육상 문외한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전남 육상인들의 기대치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의 공약과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엿보았기 때문이다.

김양훈 회장의 취임 일성에서 이와같은 강력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모든 조직 운영과 마찬가지로 가맹경기단체 등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단체의 운영 대부분이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경영은 경륜이 많은 경기인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축인 재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기에 김 회장은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으나 3천만원과, 3년 동안 1억여원 정도 지원하겠다. 또한 특별하게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얼마든지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첫 단추로서 김 회장은 3월 3일 오후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비로 3천만원을 입금 조치했다.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실천에 옮긴 셈이다.

덧붙여 김 회장은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대략 4가지다.

첫째는 1년에 3천만원 이상 주어진 3년 임기동안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이다. 이는 이미 실행에 옮겼다.

물론 전국소년,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종합대회에서 우리도 선수들의 선전에 따른 격려금, 임원간의 화합 무대 마련 등 그 이상의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거침없이 지원할 계획임도 약속했다.

두 번째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수많은 따를 흘리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지도자, 임원들이 사기를 얻을 수 있도록 포상금, 훈련지원금, 회식비 등 풍부한 예산 지원으로 상위 입상에 일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대회 참가 및 출전에 필요한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전남육상 실업팀 선수들의 급여 증액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전남체육회장(도지사), 팀 육성 해당 자치단체장, 전라남도체육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결과를 얻어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넷째는 전남육상경기연맹의 소통, 화합 운영이다.

연맹 행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이 열린 행정, 소통행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육상인



들도 모두 동참하는 화합연맹이 되도록 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를 통해 전남육상연맹이 전라남도체육회의 제1의 경기단체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도자는 말이 아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천하는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육상인들께 결코 부끄럽지 않은 회장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양훈 회장은 강진농고-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국제로타리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중학 시절 핸드볼 선수로 도 대회 출전을 경험한 바 있으며 축구, 야구 동호회의 왕성한 활동과 골프 애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정환 기자

남도일보

“육상인 위한 화합·소통 행정 펼치겠다”

김양훈,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선임



“모든 종목의 기초이면서 전남도체육회 53개 가맹경기단체 중 제1의 단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비인기종목으로 점차 전락해가고 있는 육상종목과 전남 육상인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완도에서 전복 및 광어양식을 통해 연간 약 10억여원의 순소득을 올

리며 ‘어업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이사(45·사진)가 전남육상경기연맹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양훈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김양훈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김양훈 회장은 육상 문외한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전남 육상인들의 기대치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의 공약과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모든 조직 운영과 마찬가지로 가맹경기단체 등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라고 알고 있다. 특히, 체육단체의 운영 대부분이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경영은 경륜이 많은 경기인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한 축인 재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으나 3천만원과, 3년 동안 1억여원 정도 지원하겠다. 또한 특별하게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해 얼마든지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첫 단추로 김 회장은 3일 오후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비로 3천만원을 입금 조치했다.

김 회장은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대략 4가지다.

첫째는 1년에 3천만원 이상 주어진 3년 임기동안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이다.

둘째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

들과 지도자·임원들이 사기를 얻을 수 있도록 포상금, 훈련지원금, 회식비 등 풍부한 예산 지원이다.

셋째는 전남육상 실업팀 선수들의 급여 증액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전남체육회장(도지사), 팀 육성 해당 자치단체장, 전남도체육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다.

넷째는 전남육상경기연맹의 소통·화합 운영이다.

연맹 행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이 열린 행정, 소통행정을 실시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육상인들이 모두 동참하는 화합연맹을 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 회장은 강진농고-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로타리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신광호 기자 shgh@namdonews.com

전남일보

“육상종목 적극 육성 재정 지원 나설 것”

■ 김양훈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전남육상경기연맹 제8대 회장에 김양훈(45·사진) 대한수산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양훈 신임회장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연맹을 새롭게 이끌어갈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든 종목의 기초이지만 비인기종목으로 점차 전락해가고 있는 육상 종목과 전남 육상인들

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화합과 소통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연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1년에 3000만원 이상 3년 동안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 첫 단추로서 3일 오후 연맹 운영비로 3000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김 회장은 강진농고와 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로타리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최동환 기자

"육상인의 사기진작과 소통행정 펼치겠다"

김양훈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선임



"체육의 기초인 육상 발전을 위해 이 한 몸 불사하겠습니다." 전남도체육회 53개 가맹경기단체 중 제1의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선임된 김양훈 회장은 "육상인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해 비기인 종목으로 전락된 전남 육상의 제2부흥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김양훈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완도에서 전복 및 광어양식을 통해 연간 약 10억여 원의 순소득을 올리며 '어업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이사(45)는 육상 문외한이다. 하지만 중학 시절 핸드볼 선수로 도 대회 출전을 경험한 바 있으며 축구, 야구 동호회의 왕성한 활동과 골프 애호가로서 체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발판으로 현재 전남 육상의 도약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회장은 "모든 조직 운영과 가맹경기단체 등 협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다"면서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경영은 경륜이 많은 경기인이 이끌어가는 것이 협회가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려운 육상경기단체를 위해 한해 3천만 원과, 3년 동안 1억여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말했다.

이에 대한 첫 단추로 김 회장은 3일 오후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종합대회에서 전남도 선수들의 선전에 따른 격려금과 임원간의 화합 무대 마련 등 대회 참가 및 출전에 필요한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전남육상연맹이 도체육회 제1의 경기단체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내 육상인들의 사기를 높여준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김양훈 회장은 강진농고-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국제로타리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zmd@chol.com

김양훈,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선임

기사입력 2014-03-03 16:25 | 최종수정 2014-03-03 16:25



전남 완도에서 전복 및 광어양식을 통해 연간 약 10억여 원의 순소득을 올리며 '어업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이사(45)가 전남육상경기연맹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라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김 회장은 취임 일성에서 "모든 조직 운영과 마찬가지로 가맹경기단체 등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라고 알고 있다"며, "체육단체의 운영 대부분이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경영은 경륜이 많은 경기인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는 그 한 축인 재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 김양훈 회장

김 회장은 "연 3000만 원과, 3년 동안 1억여 원 정도 지원하겠다. 또한 특별하게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해 얼마든지 아낌없이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일 오후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입금했다.

김 회장은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1년에 3000만 원 이상 주어진 3년 임기 동안 약 1억 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 포상금·훈련지원금·회식비 등 풍부한 예산 지원으로 상위 입상에 일조, 전남육상 실업팀 선수들의 급여 증액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 전남육상경기연맹의 소통·화합 운영을 약속했다.

특히, "지도자는 말이 아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천하는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육상인들께 결코 부끄럽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양훈 회장은 강진농고-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로타리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또, 중학 시절 핸드볼 선수로 도 대회 출전을 경험한 바 있으며 축구, 야구 동호회의 왕성한 활동과 골프 애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남도매일

"연맹 재정 적극 지원, 화합·소통행정 펼칠 터"

김양훈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선임 일성... 완도재력 사업가 육상인을 위한 협회 운영 다짐...제1경기단체 자존심 세울 터

"모든 종목의 기초이면서, 전라남도체육회 53개 가맹경기단체 중 제1의 단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비인기종목으로 점차 전락해가고 있는 육상종목과 전남 육상인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완도에서 전복 및 광어양식을 통해 연간 약 10억여원의 순소득을 올리며 '어업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이사(45·사진)가 전남육상경기연맹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양훈 회장은 지난달 2월 28일 11시 전라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김양훈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김양훈 회장은 육상 문외한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전남 육상인들의 기대치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의 공약과

함께 이에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엿보았기 때문이다.

김양훈 회장의 취임 일성에서 이와같은 강력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모든 조직 운영과 마찬가지로 가맹경기단체 등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단체의 운영 대부분이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경영은 경륜이 많은 경기인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축인 재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기에 김 회장은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으나 연 3천만원과, 3년 동안 1억여원 정도 지원하겠다. 또한 특별하게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얼마든지 아낌없이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첫 단추로서 김 회장은 3월 3일 오후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입금 조치했다.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실천에 옮긴 셈이다.

덧붙여 김 회장은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대략 4가지다.

첫째는 1년에 3천만원 이상 주어진 3년 임기동안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이다. 이는 이미 실행에 옮겼다.

물론 전국소년,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종합대회에서 우리도 선수들의 선전에 따른 격려금, 임원간의 화합 무대 마련 등 그 이상의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거침없이 지원할 계획임도 약속했다.

두 번째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수많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지도자, 임원들이 사기를 얻을 수 있도록 포상금, 훈련지원금, 회식비 등 풍부한 예산 지원으로 상위 입상에 일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대회 참가 및 출전에 필요한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전남육상 실업팀 선수들의 급여 증액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전남체육회(도지사), 팀 육상 해당 자치단체장, 전라남도체육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결과를 얻어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단다.

넷째는 전남육상경기연맹의 소통, 화합



운영이다.

연맹 행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이 열린 행정, 소통 행정을 하도록 할 것이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육상인들도 모두 동참하는 화합연맹이 되도록 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를 통해 전남육상연맹이 전라남도체육회 제1의 경기단체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도자는 말이 아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천하는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육상인들께 결코 부끄럽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양훈 회장은 강진농고-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국제로타리 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중학 시절 핸드볼 선수로 도 대회 출전을 경험한 바 있으며 축구, 야구 동호회의 왕성한 활동과 골프 애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종경 기자

광남일보

“전남 제1 경기단체 자존심 세울 터”

김양훈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취임
운영자금 1억원 지원·화합행정 약속



“모든 종목의 기초이자 도체 육회 53개 가맹경기단체 중 첫째 인데도 불구하고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한 육상의 재건과 전남 육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완도에서 전북과 광주 양식을 통해 연간 10여억원의 순소득을 올리며 ‘어업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양훈(45·사진) 대한수산 대표이사가 전남 육상경기연맹을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지난해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며,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까지다.

김 회장은 사실 육상 전문인이 아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전남 육상인들의 기대치는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이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가맹경기단체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다. 이에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맡고 육상연맹 운영은 경륜이

많은 경기인이 이끌어가고도록 하겠다. 많을수록 좋겠으나 연간 3~400만원씩 향후 3년간 최소 1억원을 기부하겠다. 더불어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해 얼마든지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듯 김 회장은 3일 전남육상경기연맹에 운영비로 3000만원을 기탁했다. 연행일지를 보인 것이다.

김 회장은 또 전남육상경기연맹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재무 안정화다. 그는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조달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미 실행에 옮겼다.

그는 소년체제전과 전국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전남 선수들의 선전에 따른 격려금과 임원간 화합을 위해 특별기금이 필요하면 꼭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둘째, 각종 대회에서 많은 팜을 올리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지도자, 임원들이 사기를 얻을 수 있도록 포상금, 훈련지원금, 회식비 등 풍부한 예산 지원으로 상위 입상에 일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회 참가와 출전에 필요한 사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전남 육상 실업팀 선수들의 급여 증액과 복지 증진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은 물론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체육회, 도교육청, 팀 육성 자치단체장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전남육상경기연맹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민주적 운영이다. 연맹 행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이 열린 행정, 소통행정을 하도록 할 것이며, 그동안 소외됐던 육상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전남육상연맹이 도체육회 제1의 경기단체로서 명예를 지켜내겠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전남 육상인들께 결코 부끄럽지 않는 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진농고와 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현재 국제로타리 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석 기자 pius97@

호남매일

“연맹의 화합과 소통행정 펼치겠다”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선임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이사가 전남육상경기연맹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신임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어업 경영인인 김 회장은 “모든 조직 운영과 마찬가지로 가맹경기단체 등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체육단체의 운영 대부분이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맡고, 경영은 경륜이 많은 경기인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저

는 그 한 축인 재정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으나 년 3천만원과, 3년 동안 1억여원 정도 지원하겠다. 또한 특별하게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얼마든지 아낌없이 지원토록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김 회장은 “3년 임기 동안 1억원의 재정 지원과 선수들과 지도자, 임원들의 사기를 위해 포상금, 훈련지원금, 회식비 등 풍부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남육상 실업팀 선수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과 팀 육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올리는데 노력하겠다”며 “집행부와 사무국의 소통행정으로 화합하



는 연맹이 되도록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남육상연맹이 전남도체육

의 제1의 경기단체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내겠다는 것.

김 회장은 “지도자는 말이 아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천하는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육상인들께 결코 부끄럽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양훈 회장은 강진농고-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제로타리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또한 중학 시절 핸드볼 선수로도 대회 출전을 경험한 바 있으며 축구, 야구 동호회의 왕성한 활동과 골프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이민철 기자

김 양 훈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선임

“연맹 재정 적극지원, 소통행정 약속”

“육상인을 위한 협회 운영·제1단체 자존심 세울 터”

“모든 종목의 기초이자 전남도체육회 53개 가맹경기단체 중 제1의 단체임에도 비인기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는 육상종목과 전남 육상인들의 노력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에서 전북 및 광주양식을 통해 연간 약 10여억원의 순소득을 올리며 ‘어업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이사(45)가 전남육상경기연맹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양훈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된 ‘2014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



까지다.

김 회장은 취임 일성에서 “모든 조직 운영과 마찬가지로 가맹경기단체 등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다”며 “체육단체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맡고 경영은 경륜이 많은 경기인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저는 재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3천만원, 3년동안 1억여원 지원하겠다”며 “특별하게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얼마든

지 아낌없이 지원토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첫 단추로 김 회장은 3일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비로 3천만원을 입금 조치했다.

김 회장은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 47지를 제시했다.

첫째 1년에 3천만원 이상 주어진 3년 임기동안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이다. 이는 이미 실행에 옮겼다.

둘째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들과 지도자, 임원들에 포상금, 훈련지원금, 회식비 등 예산 지원이다.

셋째 전남육상 실업팀 선수들의 급여 증액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성적을 거머쥘 수 있도록 전남체육회(도지사), 팀 육성 해당 자치단체장, 전남도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넷째 전남육상경기연맹의 소통, 화합 운영이다.

연맹 행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이 소통행정을 하며 소외된 육상인들도 모두 동참하는 화합 연맹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전남육상연맹이 전남도체육의 제1의 경기단체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도자는 말이 아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천하는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육상인들께 결코 부끄럽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양훈 회장은 강진농고-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로타리 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중학 시절 핸드볼 선수로도 대회 출전을 경험한 바 있으며 축구, 야구 동호회의 왕성한 활동과 골프 애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양승만 기자

광우타이거

전남매일

“화합과 소통행정 펼치겠다”

육상인들 위한 협회 운영 약속

전남육상연맹, 김양훈회장 선임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이사(45)가 전남육상경기연맹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양훈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김양훈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김 회장은 완도에서 전북 및 광주광역시 등 통계를 통해 연간 약 10억여원의 순소득을 올리며 지역서 '전문 어업 경영인'으로 통한다.

육상과 전혀 인연이 없는 지역의 한 사업가인 셈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전남 육상인들의 기대치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의 취임사에서 “가맹경기단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가맹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회장이 맡고, 경영은 경기인이 이끌어가도록 시스템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육상연맹에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으나 3년 동안 1억원, 1년에 3,000만원의 재정을 충당하겠다”며 “특별하게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해 인색하지 않도록 최적의 운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3일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곧바로 지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 선수들의 선전에 따른 격려금과 임원간의 화합 무대 마련 등 그 이상의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해 언제든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종 전국대회서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지도자, 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훈련지원금, 회식비 등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연맹 행정을 투명하게 이끌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이 열린 행정, 소통행정도 약속했다.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육상인들도 모두 동참하는 화합연맹이 되도록 다짐했다.

김 회장은 “지도자는 말이 아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육상인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강진농고와 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로타리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또, 중학교시절 핸드볼도 대표 선수로 대회출전 경험이 있으며 야구 동호회 활동과 골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고광민 기자

호남일보

“연맹 재정 지원 화합·소통행정 펼치겠다”

전남육상경기연맹 김양훈 회장 선임...완도 수산 사업가

육상인 운영 다짐...“제 1경기단체 자존심 세울 터”

“모든 종목의 기초이면서 전남도체육회 53개 가맹경기단체 중 제1의 단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비인기종목으로 점차 전락해가고 있는 육상종목과 전남 육상인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완도에서 전북 및 광주광역시를 통해 연간 약 10억여원의 순소득을 올리며 ‘어업 경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양훈 대한수산 대표이사(45)가 전남육상경기연맹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양훈 회장은 지난달 2월 28일 11시 전라남도체육회관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육상경기연맹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김양훈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강방원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김양훈 회장은 육상 문외한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전남 육상인들의 기대치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의 공약과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엿보았기 때문이다.

김양훈 회장의 취임 일성에서

이와같은 강령 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모든 조지 운영과 마찬가지로 가맹경기단체 등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재정과 화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단체의 운영 대부분이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맡고, 경영은 경륜이 많은 경기인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축인 재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기에 김 회장은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으나 3년 동안 3,000만원과, 3년 동안 1억여원 정도 지원하겠다. 또한 특별하게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얼마든지 아낌없이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첫 단추로서 김 회장은 3일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비로 3,000만원을 입금 조치했다.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실천에 옮긴 셈이다.



덧붙여 김 회장은 전남육상경기연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대략 4가지다. 첫째는 1년에 3,000만원 이상 주어진 3년 임기동안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이다. 이는 이미 실행에 옮겼다.

물론 전국소년,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종합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따른 격려금, 임원간의 화합 무대 마련 등 그 이상의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거침없이 지원할 계획임도 약속했다.

두 번째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수많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지도자, 임원들이 사기를 얻을 수 있도록 포상금, 훈련지원금, 회식비 등 풍부한 예산 지원으로 상위 입상에 일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대회 참가 및 출전에 필요한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전남육상 실업팀 선수들의 급여 증액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전남체육회장(도지사), 팀 육상 담당 자치단체장, 전라남도체육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결과를 얻어내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넷째는 전남육상경기연맹의 소통, 화합 운영이다.

연맹 행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이 열린 행정, 소통행정을 하도록 할 것이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육상인들도 모두 동참하는 화합연맹이 되도록 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를 통해 전남육상연맹이 전라남도체육의 제1의 경기단체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도자는 말이 아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천하는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육상인들께 결코 부끄럽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양훈 회장은 강진농고-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국제로타리3610지구 회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중화 시절 핸드볼 선수로 도 대회 출전을 경험한 바 있으며 축구, 야구 동호회의 왕성한 활동과 골프 애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윤창병 기자